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캐나다 '손스태권도' 손태환 관장[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10.30.09 20:23



최근 뉴저지에서 열린 '태권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손스태권도' 손태환(54·사진) 관장.

손 관장은 최근 미 내셔널챔피언십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제라드 로빈스씨가 만든 태권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로빈스씨는 “손 관장은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고 우수한 기량을 가진 제자를 양성해 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1975년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1976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던 제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떠오른 태권도 유망주였다.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던 손씨는 돌연 1980년 한국을 훌쩍 떠났다. 한국의 태권도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때는 역마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다니며 세계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올해로 태권도에 입문한 지 47년째인 손씨는 현재 캐나다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고 있다.

토론토에서 10년째 '손스태권도'를 운영하면서 300여명의 제자를 양성했다. 공인 4인인 아들 형제가 도장 운영을 돕고 있어 든든하다.

손씨는 최근 한국 국기원에서 승단 심사에 통과해 공인 9단에 올랐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은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보다 상 받을 사람들도 많은데 부끄럽지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태권도인 양성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용복 인턴기자 lyb8686@koreadaily.com